

지역 매아리

고창서, 교통안전공단과  
교통사고 예방에 한마음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한상윤)와 고창지역 교통사고 예방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서장,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관계직원 6명이 참석하여 노인 교통사고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군단위의 교통사고 유형, 도로환경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고, 사람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양 기관은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로부터 노인 사망자를 감소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정환 서장은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안전시설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문화재 재난관리  
선두 입지 굳히기 '총력'

신재호 고텍서 재난대응훈련 열어

고창군이 지역내 산재한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위협에서 지켜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8일 고창읍 동리로 신재호 고텍(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에서 문화재분야 재난대응훈련을 열었다.

관광객 담뱃불로 인한 고텍 화재를 가경해 유관기관과 함께 골든타임 내 신속히 진화를 완료하고, 관광객들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펼쳤다.

앞서 고창군은 분기별 소방서와 협업을 통해 관내 문화재 화재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고창관내에는 선운사 대웅전(보물 제290호) 등 목조건물문화재만 40여곳이 산재하고 있다.

그간 주요 점검 사항으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소방차 진입여부 확인 ▲소화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작동상태 확인 ▲문화재 주변 산불로 인한 화재예방대책 등이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고창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고창군 유기상 군수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은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문화재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평등한 세상 꿈꿨던 혁명의 시발점

15일 정읍시 이평면 일대서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 개최

제125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가 오는 15일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정읍시 이평면 일대에서 펼쳐진다.

고부 봉기는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을 견디다 못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1894년 2월 15일에 정봉준 장군과 함께 고부 관아를 점령한 사건이다.

단순 우발적 민란이 아니라 1893년 11월과 12월 등소를 통한 명분 축적과 사발통문거사계획 결의, 동년 12월 무장에서의 화합(결의) 등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결행된, 여타 민란과 근본적으로 다른 혁명의 출발이었다.

당시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특히 동학이 큰 힘이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한 전봉준을 비롯한 강력한 지도부가 존재했다.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에 고부봉기는 기본적인 해산을 겪고도 좌초되지 않았고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투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었다.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기치로, 만민이 평등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지난해 열린 고부봉기 재현행사.

혁명의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념제는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이사장 박종신)가 주관하고, 이평·고부·덕천·영원·소성·정우면 등 6개 면민과 청소년이 참여한다.

기념제 1부는 1894년 1월 고부봉기의 서막을 알리는 재현행사로 진행된다. 최초 혁명을 준비했던 예동마을에서 말목장터와 감나무까지 농민군 진군행렬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고부군수 조병갑을 몰아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했던 당시 농민군

의 염원을 담은 예정이다.

기념제 2부에서는 신(新)사발통문작성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지역 내 기관 단체장과 동학 관계자, 지역주민 등 다수가 참석한 기념식이 진행된다. 마지막에는 고부봉기 격문이 낭독된다. 마무리인 3부는 정읍시립극단 악단의 문화예술 공연으로 이어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100년의 삶을 기리다

고창군, 신림면 한향순 어르신 100세 맞이 마을 큰잔치 열어

조용한 시골마을에 성대한 광파르가 울려 퍼졌다. 고창군 신림면 환산마을을 최고령 한향순 여사의 100세 잔치가 열린 것. 식이 시작되자 한향순 여사는 모두의 축하 속에 조심스럽게 떡케익을 잘랐다. 여기에 울망쫄망한 5살 어린 아이들이 손 글씨로 생일 축하카드를 전달하자 환한 웃음으로 손녀들을 꼭 껴안았다. 51년의 세월을 모시며 어느새 같은 백발이 된 며느리 전순단(72)씨도 눈물을 흘렸다.

고창군이 처음으로 마련한 '100세 어르신 마을잔치'는 유기상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고창군은 역경의 100년 세월을 이겨낸 장수어르신을 지역에서 자랑스럽게 기리고 마을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랐다.

특히 잔치는 재능기부와 나눔



지난 9일 고창군 신림면 환산마을 최고령 한향순 여사의 100세 잔치가 열렸다.

봉사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고창지수 바미에 선생이 매듭작품을 선물했고, 한국판소리보존회 고창지부에서 판소리 한바탕으로 흥을 돋웠다. 고창노인복지관에선 한국무용과 5080밴드공연을 재능 기부했고, 아이캔 어린이집 아이들도 함께해 남녀노소 뜻

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현재 고창군 관내에는 100세 어르신 14분이 생존해 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100세(천수, 상수)를 하늘이 내려준 나이라는 큰 의미를 되살려 마을 잔치를 확대해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에 최선을

권익현 부안군수, 연초 주요업무계획 차질 없는 추진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11일 열린 주요간부회의에서 부안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안군민의 대응책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부안은 중국발 미세먼지 직접 영향권 위치, 대기정체 및 서풍계열 풍향 증가 등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전기자동차 보급, 전기차 충전소 보급, 저녹스 버너 보급, 대기

오염측정망 운영관리, 대기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권익현 군수는 "해빙기를 맞아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빙기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2019년도 이노브 1분기가 끝나고 2분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연초 수립했던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연초방문에서 수렴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정신 UCC에 담아요"

정읍시가 오는 5월 11일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개최에 맞춰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유진섭 시장은 "올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전승일(5월 11일)로 제정된 첫 해인 만큼,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다양한 동학농민혁명 선양 사업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그 첫 단추인 셈이다.

제1회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은 청소년부와 대학·일반부 등 2개부로 나눠 공모한다.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시상 작품을 선정한다.

공모전은 내달 19일까지 시 홈페이지(<http://www.jongup.go.kr>)를 통해 응모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문화체육과(063-539-5432)로 문의하면 된다.

유 시장은 "UCC 공모전을 통해 동학



농민혁명에 대해 이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문화재원이 새로운 가치로 창출되고 보급·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정읍시가 봄 개학기를 맞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시는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와 협조, 불법 광고물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와 함께 현지 계도도 실시했다.

주요 정비 대상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퇴폐·선정적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과 일간판, 에어라이트(중선광고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이다.

특히, 지난 8일 합동정비반은 수성초등학교에서 서영여고 앞까지 캠페인을 펼치고 시민과 광고주, 점포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학생들의 통학 시간의 파손과 추락 등이 우려되는 노후·불량 간판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불법 광고물과 음란 전단은 현장에서 강력히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럽게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 SET



GIF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 SET 3호 | 750ml 1ea/12%



GIF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 SET 5호 | 375ml 5ea/13%



GIF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http://www.gangsanwine.com)